

전남 지난해 수산물 수출 2억2300만 달러

전년도보다 3.1% 늘어
김·전복·미역 수출 견인
전국 수출액의 9.4% 차지

전남도의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은 2억 2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억 1600만 달러)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또한, 전국 수산물 수출액 23억 7700만 달러의 9.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전남 수산물 수출 기록은 지난 2017년 사상 첫 2억 달러를 돌파한 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중하고 있다. 수출 주력 품목은 김과 전복으로 각각 1억900만 달러,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실상 김과 전복이 전남 수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김은 일본과 미국 내 조미김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3.7% 늘어났다. 김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수산업의 반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복은 한류(韓流) 확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 등으로 수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미역 1800만 달러, 톳 1700만 달러, 넙치 300만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1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1.6%를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4300만 달러(19.3%) ▲중국 2000만 달러(9.1%) ▲캐나다 800만 달러(3.7%) ▲타이완 600만 달러(2.8%) 순이다. 주요 수출 상위 5개국이 전남 수산물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수산식품 거점 단지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을 지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려인광주진료소 개소 축하 공연 28일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광주진료소와 미디어센터가 신축 개소한 가운데 고려인 마을 아이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씨 내정

다음달 27일 인사청문회
복직재단 대표 내달 공모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윤진보(63) 전 전남도청 건설방재국장이 내정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2명 가운데 윤 전 국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윤 전 국장은 전남도 재난상황실장, F1지원과장, 공무원교육원장, 건설방재국장, 목포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지금까지 광주도시철도 사장에 시청 고위직 간부나 철도 관련 분야 경력자가 임명된 사례는 있지만 전남도청 출신이 내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신원조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11일 인

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전임 김성호 사장이 지난해 12월 자진 사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공석인 시산하 공공기관장과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25일 접수를 완료하고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다. 각종 잡음으로 시 감사에서 부적절 사례가 적발돼 공석이 된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도 다음달 공모에 들어가고, 사무처장은 접수를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국장(3급)·노동협력관(4급)·대변인(4급)·문화예술회관장(4급) 등 4개 자리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은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했다. 30일에는 민주인권평화국장(3급)과 문화예술회관장, 31일에는 노동협력관과 대변인 면접이 예정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폐막식 주제 변경

물의 환희→아름다운 순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대회 폐막식 주제를 '물의 환희'에서 '아름다운 순환'으로 변경했다. 조직위는 이를 통해 한국의 자연과 4계절의 시간적 순환을 연출할 계획이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FINA 회원국 200여개 나라에서 선수 및 임원, 미디어 관계자 등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와 여수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개막식은 '빛의 분수'를 주제로 광주의 첫 물방울이 광주 정신과 문화를 통해 아시아와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것을 연출한다. 주경기장인 남부대에서 열리는 마스터스(아마추어) 대회 개막식은 8월 11일, 폐막식은 8월 18일 각각 열린다. 개막식 주제는 'Playing Water', 폐막식 주제는 '다함께 하나 되어'다. 조직위는 2월 말 개·폐막식의 대략적인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토지, 축구장 1200개 만큼 늘었다

공유수면 매립 등 8.5km² 넓어져
지난해 전남지역 토지 면적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도 면적은 전년에 비해 8.5km² 넓어진 1만2344km²로 최종 확정됐다. 축구장 1200개 크기의 면적이 지난해 더 늘어났고, 전남 평균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826억 원 규모의 토지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전남의 토지 면적이 넓어진 것은 영암 관례저형기암도시 공유수면 매립(8.4km²) 준공, 여수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매립(0.1km²)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군별 면적 크기는 해남, 순천, 고흥, 화순, 보성 순이며, 필지 수로는 해남, 고흥, 나주, 순천, 신안이 많았다. 토지용도별 면적은 임야가 6967km²로 56.5%를 차지했다. 이어 ▲농지 3202km²

(25.9%) ▲도로 442km²(3.6%) ▲대지 302km²(2.4%) ▲기타 1431km²(11.6%)로 이용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와 비교해 경상북도, 강원도에 이어 3번째로 면적이 넓고, 필지 수로는 579만 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기업도시 개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해외 및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도로 등의 지목은 늘어난 반면 임야, 밭 등의 지목은 크게 줄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토지 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에 유리하다"면서 "공유수면 매립, 조상 땅 찾아주기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토지정책으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축산악취 저감사업 속도 낸다

생활환경 개선 공모 선정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센터장 신상식)가 축산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남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남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통식품에서 유래한 미생물, 복합효소 등을 활용해 축산 악취를 50%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료첨가용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28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지난 25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남 축

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달 현재 전남지역에선 가축 2700만 마리를 사육, 연간 600만头的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 늘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상식 센터장은 "악취 저감 효과가 큰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해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진과 전남 축산농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연구 성과물이 나오면 획기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 연구 성과를 축산 현장에 보급해 축산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축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련 기업을 전남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조상땅찾기' 1만8079필지 찾아줘

광주시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1065명에게 1만8079필지 1736만3620㎡의 토지를 찾아줬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해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신청자가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3만 9114명이 8만3894필지 9072만8945㎡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